농림축산식품부 동정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7.(토) 12:00 배포 2026.11.7.(토) 06:00

농식품부 장관, ‘푸드위크 코리아 2026’ 방문…“K-푸드의 혁신과 미래 가능성 확인”

- 삼성 스마트공장부터 AI 맞춤형 식품(메디쏠라), 청년 창업(밭·제주곶밭)까지 혁신 현장 구석구석 살펴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푸드테크 기반의 융복합 성장을 독려하고, 글로벌 도약 의지 다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1월 7일(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식품산업 박람회 ‘푸드위크 코리아 2026’을 전격 방문하여, 전시관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맛으로 잇는 세계, K-푸드로 통하다’를 주제로 나흘간 펼쳐진 이번 박람회는 46개국 1,00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가운데, 송 장관은 주말을 맞아 박람회장을 찾아 민간의 혁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K-푸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1. 대·중소기업 상생과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다지는 산업 체질 개선

이날 송 장관은 가장 먼저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관’을 찾아,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 공정 자동화와 로봇,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 30개 중소 식품기업의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송 장관은 “민간의 역량과 노하우가 식품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상생 협력 모델”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스를 찾아 기술개발 및 연구 성과의 현장 확산과 사업화 과정을 꼼꼼히 점검했다.

2. 지역 농산물의 가치 재발견 및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 격려

이어 B전시홀에서는 지역 농산물에 아이디어를 더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청년 창업가들과 로컬 브랜드의 활약상을 주목했다.

상품성이 낮은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전통주로 탈바꿈시킨 '제주곶밭',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감자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밭 주식회사' 등 청년 기업인들의 혁신 사례를 경청했다. 특히, 스마트팜 수직재배 바질로 페스토를 만드는 스타트업 '프롬워터' 부스를 찾아 시식하며, "농업이 첨단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농식품산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3. AI·푸드테크 융합과 전통의 현대화로 여는 K-푸드의 미래

C홀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첨단 푸드테크와 K-푸드의 다채로운 확장성을 확인했다.

올해 프랑스 SIAL PARIS 혁신 특별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AI 기반 맞춤형 케어식품 기업 '메디쏠라'를 방문해, 인공지능과 개인별 영양 설계가 접목된 미래 식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포스트바이오틱스 기술을 접목한 캔김치 생산 기업 '삼제이', 전국 화훼농가와 협력해 프리미엄 꽃차를 세계로 수출하는 '꽃을 담다', 산청 곶감에 전통 특산물을 더한 프리미엄 디저트를 생산하는 '감선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전통 소재의 현대적 상품화와 세계화 가능성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BKF^{+} 참가기업 홍보관에 전시된 다양한 농식품을 살펴보며,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과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K-푸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을 마무리하며 “이번 ‘푸드위크 코리아 2026’은 우리 식품기업들이 지닌 저력과 푸드테크·AI 등 미래 산업의 혁신 잠재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농산물과 식품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과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미선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정명희 (044-201-21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